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라크

Republic of Iraq

2023년 4월 3일 | 책임연구원 김경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442천 km ² 	인구 4,225만 명 (2022 ^e) 	정치체제 공화제 	대외정책 친서방, 친이란 
GDP 2,829억 달러 (2022 ^e) 	1인당GDP 6,696달러 (2022 ^e) 	통화단위 Iraqi Dinar(ID) 	환율(U\$기준) 1,450.00 (2022) 

- 이라크는 아시아 서남부, 아라비아 반도 동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이라크 국민은 대부분 이슬람교(전체 인구의 97%)이지만 시아파(67%)와 수니파(30%)로 나뉘어 있으며, 쿠르드족(18%)은 이라크 북부에 자치정부를 수립 및 관할하고 있는 등 국가 내 여러 종파, 민족이 공존하여 갈등 양상을 보임.
- 풍부한 원유매장량을 바탕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2021년 국제유가 상승과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인한 원유 수요의 급증으로 2021년 플러스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상·재정수지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2022년에는 9%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개선된 경제지표 등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전쟁과 UN 경제제재, IS와의 내전 등의 여파로 인프라가 부족하며, IS 잔당의 존재, 만연한 부정부패와 이로 인한 시민의 불만 고조에 따른 시위 가능성 등의 제반 상황은 외국기업의 이라크 내 투자를 저해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9. 7. 9 수교 (북한과는 1968. 1. 30 수교후 1980. 10. 10 단교)

주요협정 무역 및 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83년), 항공협정(85년), 문화협정(85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 출	934,999	986,297	1,150,883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철강
수 입	4,268,274	5,331,337	9,483,975	원유, 석유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8건, 382,196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4.7	5.8	-15.7	7.7	9.3
소비자물가상승률	0.4	-0.2	0.6	6.0	5.0
재정수지/GDP	7.9	0.8	-12.8	-0.8	11.1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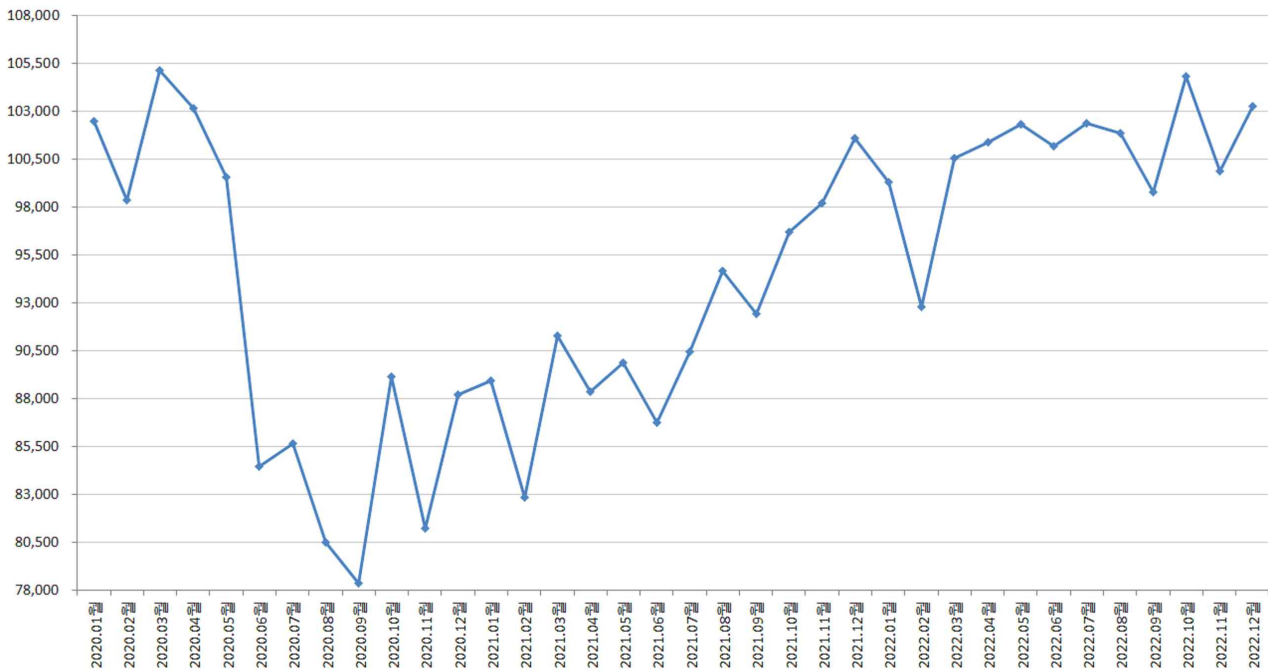
2022년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 수출량 증가로 9%대 경제성장 달성 추정

- 이라크 경제는 원유가 수출의 80% 및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석유 부문에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으로, 경제성장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기의 급속한 위축으로 원유의 국제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이에 대응코자 동년 7월 OPEC+(OPEC 소속 14개국과 주요 10개 산유국 연합체)는 사상 최대 규모인 일평균 9.7백만 배럴 감산에 합의함. 그 결과 이라크의 원유수출 수익과 상품수지 흑자가 동반 급감하여, 2020년 이라크 경제는 -15.7%의 대폭적인 역성장에 그쳤음. 이후 코로나19의 진정세로 세계경기가 점차 회복되며 에너지 국제수요 증가 및 월별 평균 원유 수출가격 상승으로 2021년 2.8%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음.
- 이라크의 배럴당 월별 평균 수출가격은 2020년 1월 60.14달러에서 4월 13.80달러로 추락하였고, 월별 원유수출 수익도 2020년 1월 61.6억 달러에서 4월 14.2억 달러로 급감함(이하 이라크 석유부 발표자료).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이라크는 월별 평균 원유 수출가격이 동년 3월 100달러를 돌파한 이후 7월까지 100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월별 원유수출 수익도 3월부터 7월까지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2022년 전체 수익이 1,156억 달러를 기록, 2022년에는 9%대 초반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2월 60.49달러로 2020년 1월 수준을 넘어선 배럴당 월별 평균 수출가격은 2022년 6월 112.21달러를 기록하였고, 월별 원유수출 수익도 113.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월간 원유 총수출량은 2020년 3월 1억 512만 배럴에서 감산 조치 등으로 인해 동년 9월 7,838.9만 배럴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점차 증가하여 2022년 10월 1억 483.1만 배럴 수준을 회복하였음.
- 2023년 세계 경기 침체 전망으로 인해 배럴당 평균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2022년의 102달러에서 소폭 하락한 91.7달러로 예측됨에 따라(EIU) 원유수출 수입이 감소하여 2023년 이라크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대폭 하락한 4%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10.8% 및 9.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2022년 10월 OPEC+이 동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일평균 200만 배럴(세계 수요의 약 2%)의 감산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2023년 이라크의 전년 대비 원유 생산량 증가율은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이라크 경제의 2023년 성장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

[그림 1] 이라크의 월간 원유 총수출량(2020.1월~2022.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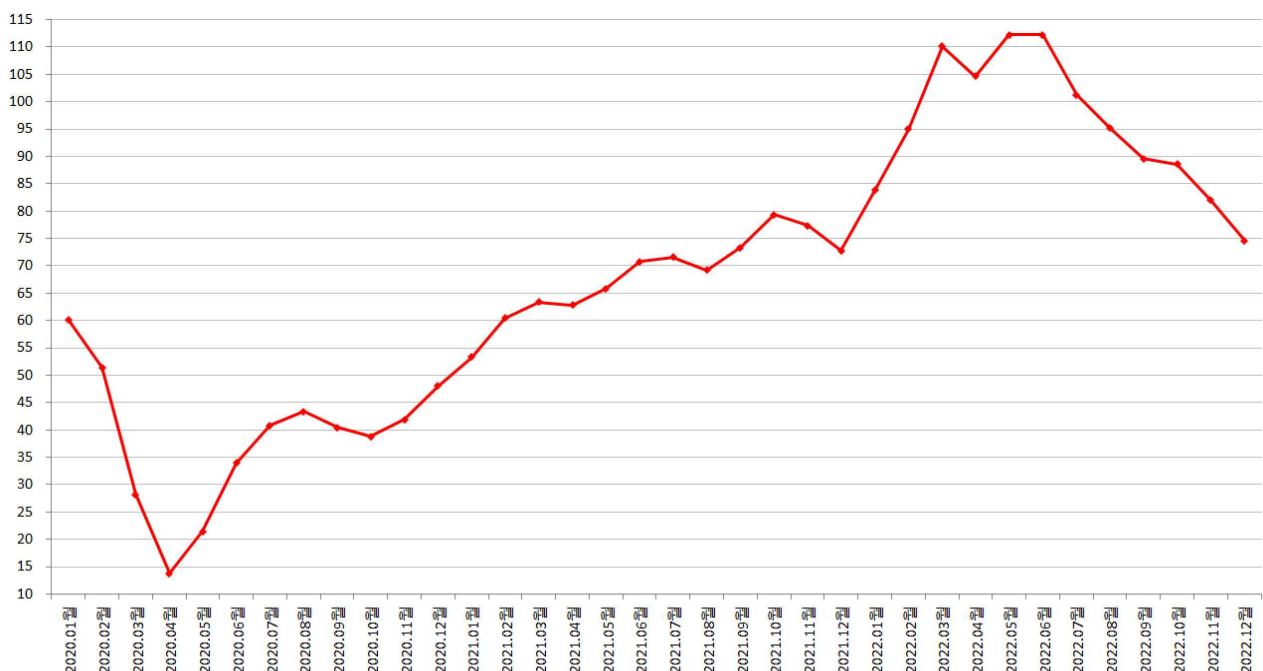
단위: 천 배럴



자료: 이라크 석유부

[그림 2] 이라크의 월별 평균 원유 수출가격(2020.1월~2022.12월)

단위: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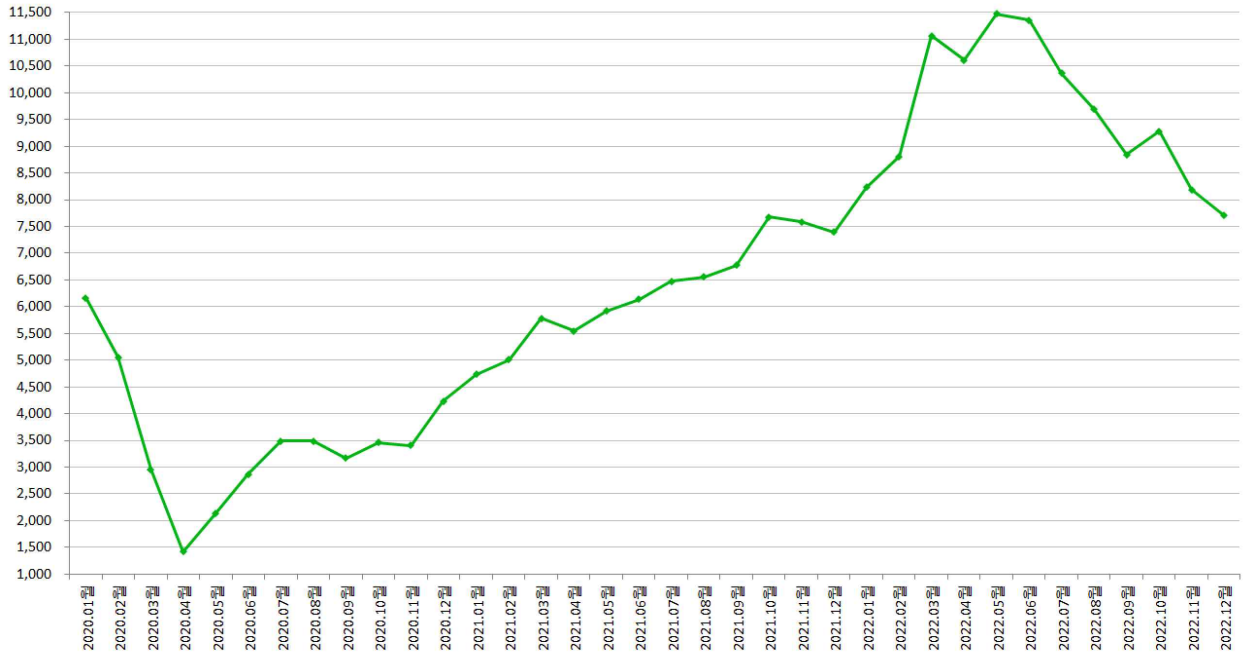


자료: 이라크 석유부

국내경제

[그림 3] 이라크의 월별 원유수출 수익(2020.1월~2022.12월)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이라크 석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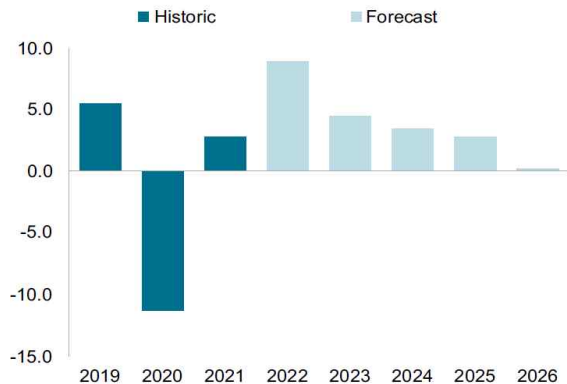
[표 1] 주요 기관별 이라크의 경제성장률 추정(2022년) 및 전망(2023년)

단위: %

구분	IMF	EIU	Moody's	Fitch
2022년	8.1	8.2	6.9	9.5
2023년	4.2	3.9	4.0	1.8

[그림 4] 이라크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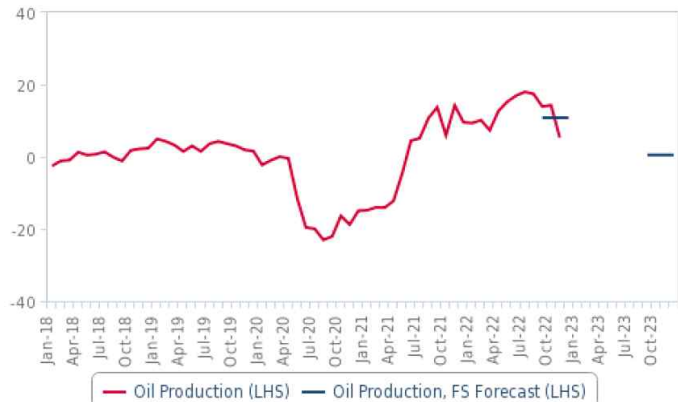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S&P Global

[그림 5] 이라크의 연간 원유생산량 추이

단위: %



자료: Fitch Solutions

국내경제

달러에 대한 디나르화 페그(peg) 조치로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품 국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하향 안정

- 이라크 정부는 전력·연료·식료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대로 억제해 왔으나, 2020년 12월 이라크 중앙은행의 디나르화 평가절하 단행으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의 결과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0%로 폭등하였음.
* 0.37%('18) → -0.20%('19) → 0.57%('20) → 6.04%('21) → 6.47%('22^e)
- 2020년 12월 이라크 중앙은행은 저유가 상황으로 인한 재정고갈 우려와 유동성 위기에 대응코자 디나르화의 달러당 환율을 1,182('20.12월 기준)에서 20% 이상 평가절하한 1,450로 페그(peg)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음.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폭등을 초래하였으나, 2022년에는 페그로 인해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상품 국제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낮아진 5.0%로 안정되었음.
- 고정환율제도는 2025년까지만 유지될 계획이었으나, 현지에서 거래되는 달러화의 환율이 1,700을 넘어서는 등 실질환율이 급등하고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치자 2023년 2월 이라크 중앙은행은 디나르화 가치 보호 및 환율 변동 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달러당 공식 환율을 1,450에서 1,300으로 낮추어 고정환율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됨.

[그림 6] 이라크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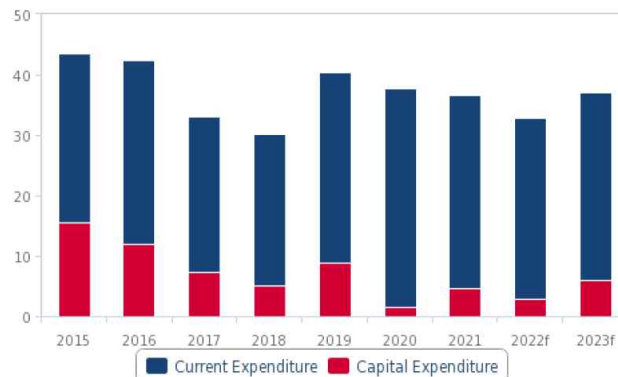
자료: Fitch Solutions.

국내경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2022년 재정수지 대폭 흑자 추정

-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원유수출 수익이 급감하여 재정수입과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방역비용, 경기부양, 서민 생계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증가한 결과 재정수지는 2020년 GDP 대비 -12.8%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이후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월별 원유수출 수익이 증가하여, 2022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1.1%의 대폭적인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들어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냉각으로 하락세를 보여 향후 5년 간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평균 85달러 안팎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Fitch), 이는 2014~16년 및 2020년 4월(배럴당 평균 19.33달러)의 국제유가 폭락 이후 상황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이라크의 중기적 재정수지 흑자 유지 및 정부부채 부담 경감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의 GDP 대비 공적채무잔액 비율은 2020년 84.3%에서 2022년 4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IMF), OECD에 의하면 재정수입 대비 공적채무 이자지급액 비율도 2020년 4.0%에서 2022년 1.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10월 27일 의회 승인으로 모하메드 시아 알 수다니 총리의 새 내각이 출범¹⁾하면서 인프라 재건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라크의 2023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7%대를 기록할 전망이다(IMF), 2010~19년 평균 GDP 대비 -0.9%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준임.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022년 36.4%(추정치)에서 2023년 41.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EIU), 전체 재정지출의 약 60%를 점유하는 공공 부문 임금, 보조금 지출 증가의 억제 여부가 이라크의 재정건전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
- 알 수다니 총리의 신임 행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이슬람국가)와의 오랜 내전 등으로 파괴되고 황폐화된 도로-교통, 디지털, 에너지 등 각 분야 인프라의 재건 및 확장을 추진함에 따라 2023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7] 이라크의 연도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자료: IMF

1) 2021년 10월 총선 결과 대통령에 쿠르드계 압둘 라티프 라시드, 총리에 시아파 모하메드 시아 알 수다니가 선출되었으나, 의회 내 알사이룬 정파와 친이란계 정파 간 갈등으로 내각 구성이 1년이나 지연되며 임시정부 체제의 정권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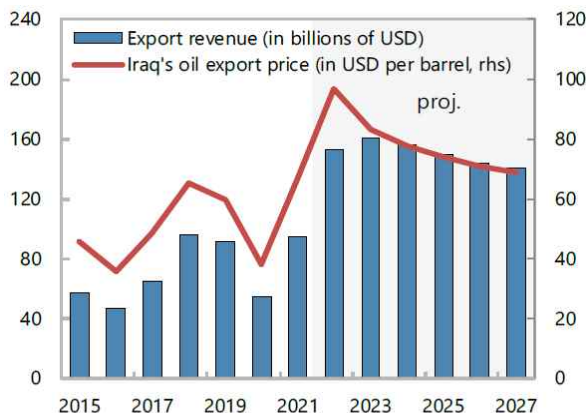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상수지	34,370	15,763	-6,198	24,563	41,339
경상수지/GDP	15.4	6.8	-3.7	11.9	14.6
상품수지	47,484	32,168	5,902	38,363	58,796
상품수출	86,360	81,585	46,829	73,084	118,352
상품수입	38,876	49,418	40,927	34,721	59,556
외환보유액	60,345	62,899	48,143	58,177	96,207
총외채	66,724	64,468	67,209	70,787	64,547
총외채잔액/GDP	29.9	27.6	39.7	34.2	22.8
D.S.R.	2.3	2.9	9.6	6.7	4.8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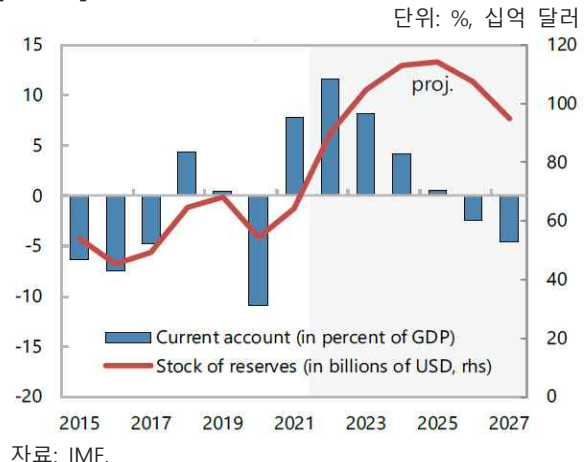
2023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유지 전망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42.6% 감소하면서 경상수지는 GDP 대비 -3.7%의 적자로 전환되었음. 2021년 팬데믹이 진정되며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고정환율제 도입으로 수입물가가 안정되어 경상수지는 GDP 대비 11.9%의 흑자를 회복하였음.
- 2022년에는 국제유가 대폭 상승으로 상품수출액이 전년 대비 61.9% 증가하여 경상수지는 GDP 대비 14.6%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23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와 석유 수출량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될 전망이나, 3년 연속 GDP 대비 두 자릿수 흑자 비율이 전망됨.
-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재정지출 확대, 재건 사업 본격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인하여 2023년 상품수입 증가율은 7%로 2022년 9.5%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입액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8] 연도별 석유수출 수익 및 수출가격 추이



[그림 9]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및 외환보유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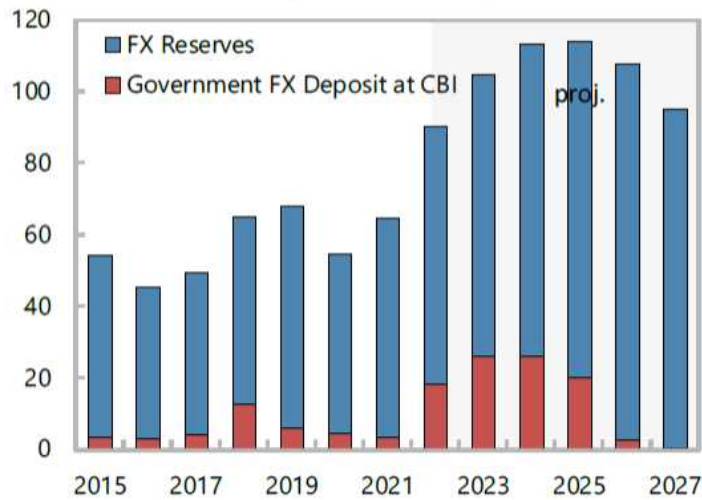
외채상환능력

고유가 지속과 원유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22년 외환보유액 증가 및 채무상환능력 개선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품수출액이 급감하면서 연말 외환보유액도 4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5% 감소하였으나,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상품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말 외환보유액도 2021년 582억 달러(전년 대비 20.8% 증가), 2022년 962억 달러(전년 대비 65.4% 증가)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1,05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말 이라크의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19년(10.0개월) 대비 3.6개월분이 증가한 13.6개월분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상품수출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130.5%에서 2022년 51.4%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39.7%에서 2022년 22.8%로 각각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D.S.R.도 2020년 9.5%에서 2022년 4.8%로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추정됨.

[그림 10] 이라크의 연도별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구조적취약성

원유에의 절대적인 의존도로 국제유가 및 원유 생산량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 1990년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UN 경제제재,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 및 기반시설 파괴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이슬람 국가) 등의 테러 공격까지 이어져 현재 이라크의 산업 인프라 전반은 극도로 피폐한 수준임. 이에 이라크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비석유 부문의 활성화보다 정부 재정수입의 즉각적인 원천이 되어주는 석유 부문에 더욱 주력하여, 아직까지 국가경제에서 비석유 부문의 비중과 발전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임.
- 산업 전반의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유지보수 역량이 부족하여 산업 전반의 발달이 저조하며, 2003년 미국의 침공과 이후 15년 간 계속된 내전으로 발전·송전 시설이 크게 파괴된 상황임.
- 원유 생산량의 증가와 더불어 천연가스 생산량도 증가하였으나, 저장소 및 정제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천연가스의 포획 및 처리 능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라크 정부는 역내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비석유 부문의 개발을 국가경제 발전의 중점과제로 삼고 있으나, 정치·사회적 혼란의 지속으로 인해 비석유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라크는 석유 부문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절대적으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OPEC+가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산에 합의하자 경제의 역성장과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 동반 적자 전환을 겪었음.
- 현재 국제유가 상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수출 수익 증가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흑자를 회복하였으나, 재정수입과 정부지출이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전적으로 좌우되고 있어 향후 OPEC+의 추가 감산 조치 여부와 그로 인한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국가경제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상존함.

지속적인 정치·사회적 불안이 경제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전체 인구가 이슬람교 내 시아파(67%)와 수니파(30%), 아랍인(78%)과 쿠르드족(18%) 등 여러 종파와 민족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정치권력도 의회 의장은 수니파, 총리는 시아파, 대통령은 쿠르드족으로 할당하고 있음.
- 군사적으로는 미국(이라크 내 미군 약 5천 명 주둔) 및 이란(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지원)의 지원을 받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와의 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나, 이후 미군 및 시아파 민병대가 서로 공습을 주고받는 등 미국-이란 갈등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불만이 반미·반이란 시위로 이어져 정치·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며 해외직접투자 유입 위축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처럼 이라크는 정치적 갈등, 내전, 주변국들로부터의 군사 개입 등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및 인프라 부족에 더하여 환율제도, 식량 보조금, 공무원 급여, 석유법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적 리스크로 지적됨.

성장잠재력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2위의 에너지자원 부국

- 이라크는 2020년 말 기준 원유 확인매장량 1,450억 배럴(세계 5위) 및 일평균 원유생산량 4.1백만 배럴(역시 세계 5위, OPEC 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의 에너지 자원 부국임.
- 서부 사막과 남부 습지의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이 아직 완전히 탐사되지 않아 향후 매장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평가됨.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라크가 지난 10년 동안 일일 원유생산량을 2배 가까이 증대함에 따라 2030년에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대 산유국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이 부진하여 석유제품의 국내수요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며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이에 신정부는 카르발라(Karbala) 정유 공장을 건설, 2023년 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수입을 60%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임.
- 공사비용 60억 달러 규모의 동 정유 공장은 하루 14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하여 LPG, 가솔린, 디젤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2023년 말에 공장의 완전한 가동이 이루어지면 이라크의 석유제품 수입물량의 90%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정책성과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의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성과는 부진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이라크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157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2014년 IS와의 전쟁 등으로 황폐화된 인프라의 재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IS와의 전쟁으로 파손·파괴된 주택, 석유,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 재건을 위해 300억 달러 기금이 조성된 상황으로 인프라 재건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 및 경제 회복이 기대되나, 만연한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추진은 지연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경제개혁 및 간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여러 종파(시아파, 수니파), 종족(아랍, 쿠르드, 소수민족), 대외 노선(친미, 친이란)으로 분열되어 있고 특정 정파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지 않아 정책 추진력이 약함.
- 이러한 부정부패와 내부 분열로 인해 정부가 각종 제도 개혁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IS 잔당을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테러로 인한 치안 불안까지 지속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대 이라크 투자는 지지부진한 상태임.

* FDI 유입액(백만 달러, 마이너스는 투자 회수 또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 상환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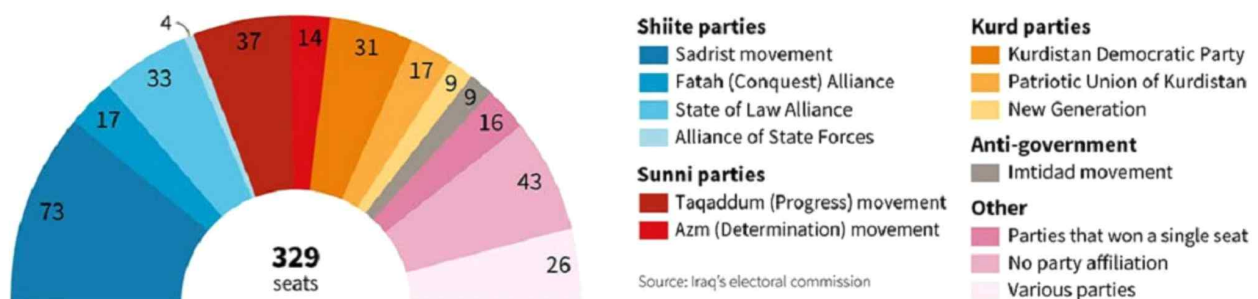
: -5,032('17) → -4,885('18) → -3,508('19) → -2,859('20) → -2,613('21)

정치안정

2021년 10월 총선 이후 1년여 간 국정 공백 끝에 2022년 신임 대통령 및 총리 선출

- 오랜 전쟁으로 인한 전기·수도 등 공공 서비스 부족, 실업난 등에 대한 불만이 2019년 10월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며 진압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발생, 당시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음. 이후 약 5개월 만인 2020년 5월 무스타파 알 카드히미 총리가 선임되면서 반정부 시위에서 표출된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여 2021년 조기 총선을 실시하였음.
- 2021년 10월의 총선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2003년 이후 역대 최저 투표율(41%)을 기록하였음.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인 알사이룬(Sadrism movement) 정파가 대승(54석→73석)을 거두고 친이란계 파타 동맹(Fatah alliance)이 다수의 의석을 잃으면서(48석→17석)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 알사이룬 정파는 총선에서 압승하고도 친이란 정파의 선거 결과 불복과 시아파 정파 내 의견 대립 등으로 정부 구성을 위한 지지를 모으지 못하고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1년여 간 내각 구성에 실패하고 임시정부 체제가 지속되었음.
 - 2022년 8월 29일 알사이룬 정파를 이끄는 반외세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인 알 사드르가 내각 구성 실패를 이유로 은퇴를 선언하자 알 사드르 추종자들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1월에는 폭발물을 실은 무인기(드론)로 총리에 대한 암살 시도까지 발생하는 등 정국 혼란이 극에 달하였음.
- 2022년 10월 이라크 의회는 쿠르드족 출신 정치인 압둘 라티프 라시드를 신임 대통령으로, 모하메드 시아 알 수다니를 신임 총리로 선출하여 1년 이상의 임시정부 체제를 벗어나 정식 내각이 출범함.
 - 내각 출범으로 정국의 불안정 요소가 모두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카드히미 전 총리 내각 출범 당시와 비교하여 출범 소요시간 단축, 내각 대다수 합의, 의회 내 미미한 반대 세력 등의 고무적 요소들이 존재함.
 - 신정부는 조기 총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선거인 명부 등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에 총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그림 11] 2021년 총선 결과 이라크 의회 구성



자료: AFP.

사회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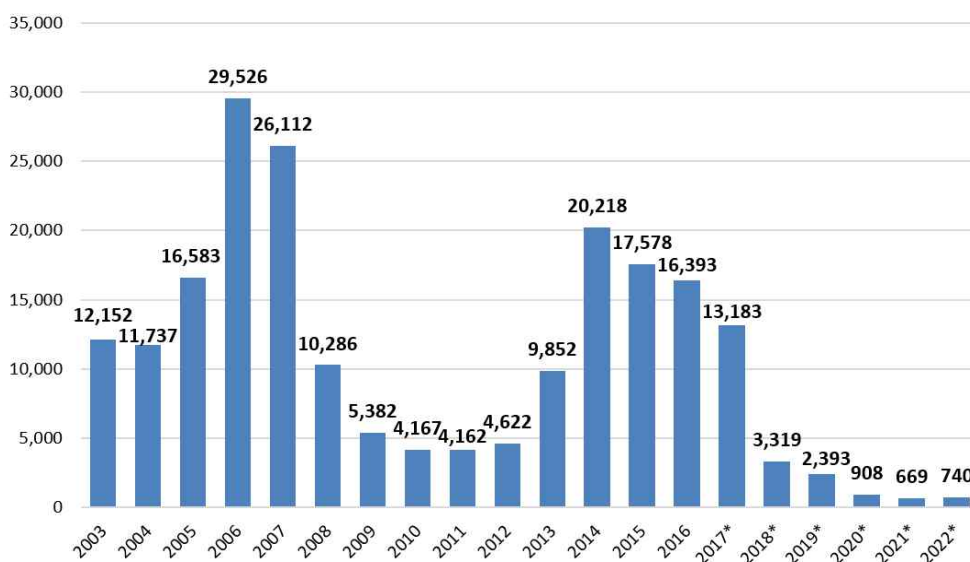
실업난, 부정부패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 누적

- 높은 실업률, 정부와 관료의 부정부패, 전력·상하수도 등 기초 공공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로 누적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여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도시들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사태는 알 수다니 총리의 새 내각 출범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10월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700명이 사망하고 25,000명이 다치면서 마흐디 당시 총리가 경제 악화 및 대규모 유혈 소요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 1년여 만에 사퇴함.
- 2021년 실시된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결과에 따르면 이라크의 실업률은 16.6%이며, 노동 참여율은 40% 미만으로 MENA 지역 평균(52%)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특히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으로 청년 노동인구 중 35% 이상이 실업자 상태이며, 여성의 실업률은 65%에 달함.

IS와의 내전 종료 후 민간인 사상자 수는 줄었으나, 테러 공격 지속으로 치안은 여전히 불안

- 이라크의 민간인 사상자 수는 2017년 이라크군이 IS와의 내전에서 승리한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IS의 패퇴 과정에서 잔당들이 소규모로 도시 지역에 숨어들거나 사막 또는 폭격으로 폐허가 된 지역에 은거하며 군·경 및 민간인에 대한 게릴라식 테러 공격을 자행하여 2022년에만 7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치안이 여전히 불안함.
- IS 잔당들은 함린과 카라초크 산맥의 은신처를 활용해 디얄라, 키르쿠크, 니나와, 살라헤딘 등에서 테러 공격을 펼치고 있으며, 주로 연방 경찰, 육군 부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 급조폭발물) 공격을 자행하고 있음.

[그림 12] 2003~22년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 수 추이



자료: Statista.

국제관계

미국·이란과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양국의 이라크 내 대리전 위험 존재

-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IS의 완전 소탕을 위한 연합 작전 및 이라크군 훈련 등을 이유로 이라크 약 5천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ExxonMobil 등 미국의 대형 석유회사들이 이라크 유전 개발 및 원유 생산에 참여하고 있어 이라크는 미국과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임.
- 한편,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지원하며 IS 격퇴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바 있고 이라크 의회 내 친이란 세력을 확보하여 이라크에 대한 군사·정치적 영향력을 암암리에 행사하고 있으며, 이란산 발전용 LNG 및 전력에 대한 이라크의 의존도가 높음.
- 2018년 3월 당시 하이데르 알 아비디 이라크 총리는 티크리트, 라마디, 모술 등 이라크 내 IS 근거지 탈환 작전에 주축을 담당한 시아파 민병대에게 정규군과 동등한 대우를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2020년 1월 이라크를 방문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Qods)군 사령관이 미군의 무인기(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사건을 비롯하여 이라크 주둔 미군과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간 공습이 이어지는 등 이라크가 미국-이란 간 갈등의 대리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상황임.

2022년 11월 발생한 이스탄불 폭탄 테러 사건 이후 튀르키예와의 갈등 고조

- 튀르키예 국방부는 2022년 11월 13일에 발생한 이스탄불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1주일 뒤인 11월 20일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노동자당(PKK) 기지를 공습, 32명 이상이 사망함.
- * 2022년 11월 13일 이스탄불 베이올로 지구의 이스티클랄 거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당함. 튀르키예 정부는 동 사건의 배후로 시리아수호부대와 이라크 PKK를 지목하고 있으나, 이들 조직은 관련성을 부인함.
- 튀르키예 국방부는 11월 20일부터 실시한 튀르키예의 '대 PKK Claw-Sword' 군사작전을 통해 이라크 북부 내 PKK 무장세력의 목표물 45개를 공격했다고 발표함.
- 튀르키예가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이라크 북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이라크 내의 쿠르드족 무장단체(PMF) 대응을 명분으로 이라크 영토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며 쿠르드 지역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여 이라크와 튀르키예 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
- 2022년 7월 튀르키예군이 PKK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쿠르드 지역의 한 공원에 대한 포격으로 9명이 사망하자 이라크 각지에서 반 튀르키예 시위가 벌어졌으며, 올해 2월에도 튀르키예군이 이라크 북부 지역을 드론으로 공격하여 3명이 사망함.

외채상환태도

파리클럽으로부터 대규모 외채탕감 경험

-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파리클럽 회원국 앞 채무 400억 달러 중 약 80%인 330억 달러의 대규모 채무를 탕감받은 이력이 있음(2004년 11월 합의).
- 이라크의 채무탕감에는 채무불이행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이라크 전쟁에 책임이 있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라크는 현재까지 파리클럽으로부터 가장 많은 채무탕감을 받은 국가들 중 하나임.

OECD 회원국 ECA 앞 높은 연체비율

- 202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5,931.3백만 달러(단기 66백만 달러, 중장기 4,157.1백만 달러)이며, 현재 잔액의 약 30%인 1,774.2백만 달러를 연체* 중으로 연체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다만, 2021년에 5억 9,760만 달러를 상환하는 등 연체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연체액(백만 달러): 3,007.9('20.12월) → 2,410.3('21.6월) → 2,363.3('21.9월) → 1,940('22.6월) → 1,774.2('22.9월)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23.01)	7등급 (2022.01)
Moody's	Caa1 (2021.07)	Caa1 (2019.07)
Fitch	B- (2022.12)	B- (2022.01)

OECD는 7등급 유지, 국제신용평가3사도 투자부적격 등급 유지

- OECD는 1996년 이래 현재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2023년 1월 평가회의에서도 7등급을 부여하였음.
- Moody's는 Caa1, Fitch는 B-를 각각 부여하는 등 국제신용평가3사 모두 이라크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 중에서도 하위권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이라크는 2018년 말 기준 원유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 세계 5위의 에너지 자원 부국으로, 원유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원유 순수출국임. 2021~22년 국제유가 상승과 산유량 증가 등으로 플러스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상·재정수지가 흑자를 지속하였고 채무상환능력도 개선됨.
- 2021년 10월 총선 이후 정파 내 의견 대립 등으로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져 1년 넘게 내각 구성에 실패하였으나, 2022년 10월 의회가 모하메드 시아 알 수다니를 새 총리로 선출하면서 정식 내각이 출범함.
- 그러나 전력·식수 등 공공 서비스의 부재, 실업난,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는 가운데 반정부 시위는 새 내각 출범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더불어 IS의 지속적인 테러 공격과 튀르키예와의 갈등 상황으로 정세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OECD는 1996년 이후 이라크의 국가등급을 최하등급(7등급)으로 유지 중이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모두 이라크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